

보도 일시	2023. 2. 1.(수) 14:00 (행사시작시)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3. 2. 1.(수) 10:00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박혜린 (044-200-1940)
	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포용전환국 기후변화적응팀	담당자	사무관 김희경 (044-200-1941)

기후위기 대응,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

- 탄녹위 · 기상청 공동,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책 간담회 개최 -

- 기상청(청장 유희동)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,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, 이하 ‘탄녹위’)는 2월 1일(수) 오후 2시에 ‘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·예측 정책 간담회’를 개최했다.
 -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청, 탄녹위 관계자와 대기과학 및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.
-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·예측의 정책 방향과 함께, 이를 적응대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.
 -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극한기후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가 아열대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길고 더운 여름과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, 기후 위험성 평가와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.
 - 예상옥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 부족, 식량 부족, 해양산성화, 해수면 상승,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·경제·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.
 - 정희철 한국환경연구원(KEI)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현재(‘85-’14) 연평균 6일에서 21세기 말에는 92일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, 보다 정교한 기후 위험 평가체계를 토대로 한

‘활용 중심의 정보 생산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’이 필요함을 주장했다.

-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범위, 기후위기 감시예측 데이터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.

□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후 위험 관리에 기반한 정밀한 기후변화 감시·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- 기상청은 2022년 3월 시행된 「탄소중립기본법」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·예측업무를 총괄·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, 관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.

- 이에 따라, 지표오존의 변화, 아열대화 등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정보를 발굴·분석하고, 폭염, 호우 등 극한기후의 미래 발생 빈도·강도 등 예측 정보를 연내에 제공하고,

-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 정보 시스템(GIS) 기반의 감시·예측 분석도구도 개발하여 올 연말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·예측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탄녹위에 보고하고,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유희동 기상청장은 “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므로, 기상청은 온실가스(육불화황) 세계표준센터 운영으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) 국제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”라면서,

- “기상청은 품질 좋은 자료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감시·예측 전략을 마련하여, 국가 탄소중립 대응 정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“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대책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후 데이터의 생산과 함께 이를 정책에 정확히 연계시키고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”라며,

- “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관련 부처 간 연계·협력 및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 간담회 개최 계획

담당 부서 <총괄>	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	책임자	팀 장	박혜린	(044-200-1940)
	포용전환국 기후변화적응팀	담당자	사무관	김희경	(044-200-1941)
<공동>	기상청 기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원재광	(042-481-7381)
		담당자	사무관	노경숙	(042-481-7376)



□ **목 적**

-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이행*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책 방향 모색
- * 기상청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업무의 총괄·지원(법 제37조, 영 제40조제2항)

□ **개 요**

- 주 최 :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·기상청
- 일시/장소 : '23. 2. 1. 14:00 / 서울비즈센터(서울역 인근)
- 참 석: (탄녹위) 포용전환국장, 기후변화적응팀장, 적응 전문가 등
(기상청) 기후과학국장, 기후정책과장, 감시·예측 전문가 등
- 안 건: 기후위기 감시·예측정보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

□ **세부내용**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 ~ 14:05	▶ 개회 및 참석자 소개	원재광 과장(기상청)
14:05 ~ 14:10	▶ 인사말씀	조익노 포용전환국장 이미선 기후과학국장
14:10 ~ 15:25 (20분/5분)	[주제발표]	
	▶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와 활용	최영은 교수(건국대)
	▶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책 방향	예상욱 교수(한양대)
	▶ 기후위기 감시예측정보의 기후변화 적응 연계 방안	정휘철 연구위원(KEI)
15:25 ~ 15:35	휴 식	
15:35 ~ 17:00	[패널토론] 좌장: 정수종 교수	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
	▶ 김백민 교수(부경대) ▶ 김하나 교수(KAIST) ▶ 김상우 교수(서울대) ▶ 임철수 센터장(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) ▶ 원재광 과장(기상청 기후정책과) ▶ 박혜린 팀장(탄녹위 기후변화적응팀)	토론자
~ 17:00	▶ 폐회	원재광 과장(기상청)